

人文論叢

82권 4호

2025년 11월

서평

문학이론을 넘어 — 일본 인문학의 지층을 드러내는 안내서

이미정*

[서평] 미하라 요시아키·와타나베 에리·

우도 사토시 엮음(2024), 장문석·조은애·송민호

옮김, 『문학 ‘읽기’의 방법들: 문학이론 도구상자』,
이음, 452쪽

언뜻 보면 『문학 ‘읽기’의 방법들: 문학이론 도구상자』(이하 『문학 ‘읽기’의 방법들』)는 문학이론 또는 비평이론 수업에서 사용될 만한 전형적인 이론 개설서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¹ 적어도 필자가 소속된 영문학 분과에서는 고학년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런 종류의 이론 교과서나 핸드북이 하나의 분명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작하며」에서 편집자이자 공저자인 미하라 요시아키가 말하듯, 1990년대 일본에서 자신이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와 달리 문학이론은 이미 정규 교육 과정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고, 서점에는 수많은 입문서·개론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는 인문학·사회과학 전반에서 ‘이론’(theory)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비평적 실천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던 시기, 특히 그 정점이었던 1980년대를 지나, 이론이 하나의 제도적·교육적 필드로 정착한 이후에 가능해진 풍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안정화 이후, 오늘날 영미권에서는 오히려 ‘weak theory’, ‘antitheory’, ‘post-theory’와 같은 용어들이 주목받으며 이론의 역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 ‘비평이론’은 영어의 literary theory 또는 critical theory를 가리키며, 프랑크푸르트학과 전통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하버마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등이 발전시킨 사회철학적 비판의 계보를 말한다.

할과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反)이론적 흐름은 최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80~90년대 이미 제기되었던 회의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장의 저자 고하라 가이 역시 “이 책 또한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지금, 비평이론을 안다는 것의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33)고 밝히며, 이론의 ‘홍수’와 ‘포화’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 묻는다. 이처럼 이 책의 저자들은 이미 넘쳐나는 이론 입문서들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안내서(guidebook)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입문서, 개론서, 개설서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러한 장르가 충족해야 하는 기본 기대치는 분명하다. 특히 그 주제가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문학이론의 경우,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문학을 읽고 비평하는 데 그 개념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한계, 논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습자뿐 아니라 강의자에게도 유용한 실용적 도구이다. 피터 베리(Peter Barry)의 『이론 시작하기: 문학과 문화 이론 입문』(*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은 마치 문제집처럼 매 장 「멈추고 생각해보기(“STOP AND THINK”)」라는 꼭지를 두어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베리의 책을 포함한 많은 입문서는 주요 이론 사조를 잘 알려진 정전 텍스트에 적용한 예시 비평을 수록하기도 한다.²

『문학 ‘읽기’의 방법들』의 마지막 장 「문학이론의 입문서 가이드」(와타나베 에리)에서도 언급되듯, 영미권의 고전적 입문서로는 베리의 책 외에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문학이론입문』(*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조너선 컬러(Jonathan Culler)의 『문학이론』(*Literary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2 베리의 *Beginning Theory*는 맨체스터 대학 출판부에서 1995년에 초판이 출간된 후 2002, 2013, 2017년의 개정판을 거쳤다. 『현대문학이론 입문』(시유시, 2001)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이 흔히 거론된다.³ 베리와 켈러의 책은 최근까지의 개정을 통해 독립된 장에서 새로운 이론 동향과 예시를 반영해 왔다. 반면 이글턴의 책은 1996년의 개정판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에, 20세기 후반의 영미 학계가 ‘문학이론’을 어디까지로 간주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문학이론사적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제목에 ‘소개’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 난도와 더불어 저자의 마르크스주의적 전제 및 당시 영미권 학계에 대한 일정한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입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토마스 포스터(Thomas Foster)의 『교수처럼 문학 읽는 법』(*How to Read Literature Like a Professor*)과 같은 베스트셀러는 훨씬 더 기초적이고 접근성 높은 대중적 안내서로서, 꾸준히 개정판을 내며 넓은 독자층을 확보해 왔다.⁴ 이러한 책의 지속적인 재출간은 문학뿐 아니라 ‘문화’를 해석하기 위한 보다 쉬운 도구와 설명을 바라는 독자적 수

3 이글턴의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은 미네소타 대학 출판부에서 1983년 초판 이후 1996년 개정판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했고, 2008년의 25주년 판에서는 그간 이론적 지형의 변화에 관한 이글턴의 서문이 추가되었다. 국내에서는 1989년에 창비에서 『문학이론입문』으로, 인간사랑에서 2006년 『문학이론입문(개정판)』으로 번역되었다. 켈러의 *Literary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1997년 초판 이후 2011년에 개정판을 냈다. 『문학이론』(동문선, 1999), 『문학이론(개정판)』(교유서가, 2023)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4 포스터의 *How to Read Literature Like a Professor*는 세 차례의 개정(2003, 2014, 2024)을 거쳤다. 흥미롭게도 켈러, 이글턴, 베리의 책은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학술적 입문서인 데 반해, 포스터의 책은 상업 출판 그룹 Harper Collins 산하의 대중 임프린트 Harper Perennial에서 출간된 책으로, 명확히 대중 독자를 겨냥한 교양형 안내서라는 점에서 출판 지형과 독자 설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포스터는 동일한 기획 방식으로 *How to Read Poetry Like a Professor*(『교수처럼 시 읽는 법』), *How to Read Nonfiction Like a Professor*(『교수처럼 논픽션 읽는 법』), *How to Read Literature Like a Professor: For Kids*(『교수처럼 문학 읽는 법: 청소년을 위해』)까지 출간하며, 문학(과 비문학)을 ‘전문가적 읽기 방식’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브랜드를 확장해 왔다. 여기서 ‘교수’(professor)라는 단어가 암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과 해석 권력의 위치는, 이를 대중화된 안내서의 형식으로 탈신비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맞물린다. 포스터의 책은 『교수처럼 문학 읽기: 작품 속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문학 독서의 기술(개정증보판)』(이루, 2024)로 번역되었다.

요가 계속해서 존재함을 보여준다.

문학이론 입문서라는 하나의 장르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기대, 그리고 대상 독자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입문서라 하더라도 “문학이론”이라는 장(場)으로 누구를 안내하며, 그 안내는 어디서 시작해 무엇을 가능케 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구별될 수 있다. 특히 문학비평과 독해 방법론이 주로 서구 학계에서 발생하고 제도화된 영역이며, 심지어 제3세계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조차 대표 이론가 다수가 미국 대학에서 입지를 구축해 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계보를 염두에 둔다면, 『문학 ‘읽기’의 방법들』이 소개하고 안내하는 주요 내용이 대체로 서구발 문학이론이라는 점은 사실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을 서구로부터 비서구로의 단순한 ‘수입’ 모델로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구 이론이 일본적으로 이해되고 정착하는 한 방식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텍스트다. 문학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 책을 또 다른 차원에서 메타적으로 읽는다면,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 속에서 이론을 읽는가?”라는 문제를 전면화하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편집자 미하라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제시한 관점과도 맞닿는다. 그는 이론을 “도구상자”(toolbox)처럼 손에 쥐고 자율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 ‘도구상자’를 열어젖히는 과정에서 독자가 연루되고 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자기 변용”을 강조한다(17). 즉, 이론을 사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비평적 주체가 아니라, 이론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존재를 상정한다. 이 점은 제프리 R. 디 리오(Jeffrey R. Di Leo)가 최근에 낸 또 다른 개론서의 서론에서 밝힌 문제의식과도 호응한다.⁵ 디 리오는 이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려는 작업에서 완전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명확히 인정하며, “이론

5 Jeffrey R. Di Leo (2023), *Contemporary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An Overview*.

을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이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근본적 신념과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하기에,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1). 그렇기에, “‘이론이라는 도시’를 안내하는 공정한 가이드가 되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세심한 독자는 곳곳에서 가끔씩 저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히며 책을 시작한다(1). 이론을 ‘사용하는’ 독자가 이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화하듯, 이론을 ‘안내하는’ 저자 또한 안내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유와 위치를 이처럼 은연중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문학 ‘읽기’의 방법들』은 오늘날 학계에서 이론이 과도하게 도구화되며 발생한 피로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제안으로, 이론을 읽고 사용하는 “나”의 여러 위치성을—지역성, 언어, 훈련 배경, 소속 학문분과, 그리고 감정적이며 윤리적인 책임까지—함께 고민하도록 요구한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유기적 나무의 은유를 들여다보자. 편집자는 문학이론 공부를 “거대한 나무를 기어올라 높은 곳에서 또 다른 경치를 보고, 다시 옆나무로 이동하는 자유로운 운동”(24)에 비유한다. 이는 단일한 이론 체계나 사조에 고착되기보다, 가지를 옮겨 타며 스스로의 사유 지형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유를 실천하기 위해 책은 2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전반부에서는 ‘문학이론’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사색하는 것(Fundamentals)을, 후반부에서는 큰 가지 몇 개의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지금 피어있는 꽃을 감상하면서 그 꽃잎 안쪽으로부터 새로운 사색의 실마리를 발견=발명하는 것(Topics)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6). 즉, 1부는 이론의 발생 환경, 역사적 맥락,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2부는 주요 이론적 토픽들로 가지를 뻗어나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론의 작동 방식과 그 변형·확장 가능성을 추적한다. 1부가 “1980~90년대 일본에서 문학이론이 정착하던 시기에 학문적 여정을 시작한 필자 5인”(26)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사실은, 이론의 ‘뿌리’와 필자들의 학자적 ‘뿌리’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층위를 형성한다. 반면 2부는

미하라가 도쿄대로 이직하기 전에 소속돼 있던 히토쓰바시대학의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젊은 연구자들이 집필하여, 다양한 이론 사조를 간결하고 유용한 ‘지도’(mapping) 형태로 제시한다. 이 지도적 성격은 단순히 이론의 요점을 나열한 요약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군의 관계를 재배열하여 독자가 스스로 이론적 지형을 가로지르며 사유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유의 도구’에 가깝다. 저자들은 영미문학 및 이론, 프랑스어권 문학을 전공했으며,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서구(미국과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을 비교·대조하고 서로 교차시킴으로써, 여러 이론 간의 연결·차이·전환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복층적 안내서가 완성된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자면, 책은 1부에서 문학이론의 역사적·개념적 뿌리를, 2부에서 주요 사조와 토픽을 다루는 구성을 취한다. 1부에서는 「텍스트」, 「읽다」, 「언어」, 「욕망」, 「세계」라는,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상 신비평과 구조주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학이론의 큰 흐름을 지탱해 온 핵심 개념들을 축으로 삼는 굵직한 키워드들로 구성된다. 2부는 「네이션/제국/글로벌화와 문학」, 「포스트휴먼/이즘과 문학」, 「환경과 문학」, 「정신분석과 문학」, 「젠더·섹슈얼리티와 문학」이라는 다섯 개의 토픽을 탐색한다. 여느 문학이론 개론서에 등장할 법한 단골 이론가와 사조들이 다루어진다. 애초에 문학이론 전체를 빠짐없이 포괄하는 책이 되려는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고, 또한 집필진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선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착성”이나 “의료 인문학” 등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되는 주제, 또는 “인종”이나 “기술”과 같은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주제가 독립된 장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 역시 큰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 포괄적 완결성을 지향하지 않는 이 책의 강점은 주요 이론가·사조·논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이 특정 시대적·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유행’으로 부상했는지를 설명하고, 그 유행에 내

제한 긴장과 문제의식을 함께 제시한다는 데 있다. 장들 사이의 연결 개념이나 키워드가 등장할 때마다 다른 장을 화살표로 가리키며 몇 쪽을 참고하라는 안내로 서로 촘촘히 연결하는 구성도 흥미롭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문학이론을 하나의 고정된 흐름이 아니라, 여러 이론적 노드들이 상호 참조하며 얹혀 있는 거대한 망처럼 체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 전반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본’이라는 지적·문화적 지층이 스며들어 있다. 예컨대 1부 1장 「텍스트」에서는 바르트와 데리다의 논의를 정리한 뒤, 일본 비평가 하스미 시게히코의 “텍스트적 현실” 개념을 나란히 논의한다. 3장 「언어」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탈영토화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추상적 개념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키나와 문학이라는 구체적 텍스트에 연결한다. 또한 “표상 지배, 소수자 정치” 개념을 설명한 뒤에는, 그 개념을 적용해 제일조 선인이 일본어로 쓴 문학을 분석하는 예시가 이어진다. 5장 「세계」에서는 세계문학의 유통 구조를 설명하며, “도쿄가 출판의 대부분을 독점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배분하는 유통망을 확립하고, 유일한 국어인 일본어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일본이 전형적인 국민국가로서 나쓰메 소세키 같은 근대문학의 ‘국민작가’를 가졌던 것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197)는 점을 짚는다. 이 대목이 흥미로운 것은, 책이 상정하는 독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출판·언어·국민문학 체제가 세계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조건’이 아님을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장소·언어·국가(혹은 국가가 부재한 공동체나 민족)마다 문학의 생산·유통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는, 일종의 ‘교정적’ 설명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으며, 필자는 그 직접적 대상 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바깥에서’ 목격함으로써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일본의 근대 국민문학 형성과 긴밀히 얹혀 있는 출판·유통 구조를 알고 있는 일본 독자라면 이것을 자연스러운 기본값으로 삼기 쉽지만, 저자는 바로 그 점을 은근히 문제화하며 세계문학의

불균등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각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2부에서도 일본적 가치나 꽃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7장 「포스트휴먼/이즘과 문학」의 “일본에 있어서 존재론적 전회” 절에서는, 2012년 일본 문학 인류학계의 특집 호를 전환점으로 일본 내부에서 포스트휴머니즘 논의가 어떻게 전개·변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8장 「환경과 문학」에서는 영미권에서 전개된 환경인문학·생태비평의 흐름을 소개하고 나서, “원폭문학/핵문학”, “진재와 문학”이라는 각각의 절에서 일본 현대사의 핵심적 환경·재난 경험이 문학적 상상력과 이론적 사유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9장 「정신분석」의 “정신분석과 일본인론”이라는 절은, 서구의 정신분석 담론이 일본에서 ‘일본인론’이라는 특유의 문화론적 담론과 접합되며 새로운 사유 지층을 만들어낸 과정을 추적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일본의 예시가 곁들여져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일본의 독자적 지적·제도적 토양 위에서 자라난 이론의 흐름을 은근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연루된 안내서’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들로 읽힌다.

원제 『문학이론: 읽는 방법을 배워 문학과 다시 만나다』에서 ‘다시’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상실된 것을 회복하려는 정서를 분명히 환기한다. 그것이 문학과와 거리인지, 이론과의 거리인지, 혹은 문학과 이론을 경유하여 독자로서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의 단절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시 만나다”라는 표현에는 한 번 끊어진 혹은 희미해진 어떤 인연을 다시 잇고자 하는 욕망이 서려 있다. 편집자는 서문에서 이 책이 어떤 우연한 기획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학문적 공동체와 우정, 멘토십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결과물임을 강조한다. 모든 장기 프로젝트가 그렇듯, 이 책 역시 누군가의 단독 작업이 아니라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축적된 하나의 궤적이며, 그 점에서 ‘다시 만나다’라는 표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느끼게 된 단절과 고립 이후, 학문 공동체의 연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과도 겹쳐 보인다. 교보문고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이 책은 일본에서 2020년 출간 이후 2023년까지 5쇄를 찍으며, 이른바

‘이론 입문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폭넓은 독자적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필자는 일본 사회와 학계의 구체적 동향에 대해 함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보게 되는 일본 인문학계의 몇 가지 특징—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된 번역·출판 인프라, 서구 이론을 수용해 온 역사와 그 방식, 이를 둘러싼 학문 공동체의 역동성—은 한국에 위치한 영문학 연구자의 눈에는 분명 독특한 지형으로 비친다. 각 장 말미에 제시된 “해당 주제를 더 알기 위한 책 10권” 목록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일본어 저작의 존재⁶ 또한 이 책이 다루는 이론들은 궁중에 떠다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토양 위에서 번역·출판·교육이라는 경로를 거치며 뿌리내린 하나의 나무이자 그 나무에서 뻗어 나온 가지들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역자 장문석·조은애·송민호가 후기에서 강조하듯, 이 책은 “다양한 영역의 서구 이론적 저작을 이미 자국어로 번역 및 출판한 일본 인문학의 토대와 축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434). 책의 마지막에 배치된 우도 사토시의 「세계문학 (뒷)길 안내」와 와타나베 에리의 「문학이론의 입문서 가이드」는 비록 분량은 짧지만, 앞서 관찰한 일본적 토양 위에서의 지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도화되고 정리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세계문학 (뒷)길 안내」는 일본의 가와데서방신사, 산세이도, 쇼랴이샤, 슈에이샤, 고분샤 등 다양한 출판사의 총서와 시리즈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어떤 출판 기획, 시리즈 구성, 출판사의 큐레이션 전략 속에서 세계문학이라는 독서 활동이 가능해지는가를 보여준다. 「문학이론의 입문서 가이드」는 앞서 필자가 논한 이글턴의 책이 일본에 소개된 지점을 출발점 삼아, 일본 연구자들이 집필한 입문서를 출간 연도순으로 배열하며 해당 저서의 특징, 문제의식,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다. 두 글 모두 특정 이론이나 개념을 해설하기보다, 그것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출판·독

6 한국어 역자들이 이 목록 가운데 한국어 번역본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 점 또한 인상적이다. 일본과 한국의 인문학적 토양이 서구 이론을 어떻게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주해 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서·학습 생태계의 단면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읽기’의 방법들』이 가이드북으로서 안내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문학이론만이 아니다. 입문서로서 당연히 수행하는 문학이론 안내와 더불어, 서구발 문학이론이 일본적 사유의 지층 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재맥락화해 왔는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일종의 ‘지형 안내서’로도 기능한다. 앞의 층위, 즉 문학이론의 소개와 개념 정리는 입문서라는 장르적 속성상 비교적 분명하고 친절하게 제시되지만, 뒤의 층위는 보다 미묘하고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두 번째 층위는 저자들이 독자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일본 내부의 지적 조건이 자연스럽게 텍스트에 스며들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에 가깝다. 책은 저자들이 의도한 1차적 안내(문학이론의 습득)뿐 아니라, 한국어 번역본의 독자인 필자가 읽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작동하게 된 2차적 안내(일본 문학이론 토양의 문화·제도적 맥락 발견)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텍스트가 된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독자는 문학이론이라는 표면적 주제뿐 아니라 그 배후의 사유 지층에 간헐적으로 접속될 수 있는 통로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바로 그 우연성이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번역자의 말」에서 역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적 거리, 그리고 두 나라의 인문학이 지닌 제도적 간극을 의도적으로 ‘가시화’하려 했다고 밝힌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번역 전략을 취했다고 서술한다. 첫째, 이 책이 일본어로 쓰였고 일본어 번역을 바탕으로 서구 이론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미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하는 서구 이론가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일본어 번역본을 다시 한국어로 옮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둘째, 이 책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론서 가운데 한국어 번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서지를 각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인문학이 구축해 온 번역의 역사 또한 한국 독자가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번역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인문학적 공간이 동일한 이론 개념을 받아들이고 변형해 온 서로 다른 경로가 존재함을 알

아차리게 만드는 하나의 비평적 장치이다.

예컨대 일본어 번역에서 deconstruction은 ‘탈구축’, representation은 ‘표상’으로 옮겨져 있어 역자들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번역어는 필자에게 익숙한 ‘해체’와 ‘재현’과는 다른 용어 선택으로, 동일한 이론 개념이 언어 및 분야 간 전환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⁷ 이러한 차이는 단순 번역상의 선택이 아니라, 특정 이론 용어가 어느 학문 전통에서 어떤 용법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착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해체/탈구축’, ‘재현/표상’이 혼재되어 쓰여왔다는 역자의 설명을 들으며, 번역어의 차이는 학문분과, 세대, 유학 경로, 지적 계보, 제도화 시기 등 복합적 조건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1월 초에 서울을 방문한 미하라와의 대화에서, 도쿄대학교 고마바 캠퍼스의 “다학제적 문화연구” 프로그램 내 핵심 분과가 “문화와 표상”이라는 명칭으로 1986년부터 제도화되어 있었고 일본 학계에서 정착된 경로가 결코 자명하거나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접했을 때, 번역어가 특정 시기, 특정 학자와 제도적 조건이 맞물리며 정착되기도 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표상’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제도화된 후,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학문적·번역적 경로를 경유해 한국에서도 개념적 자원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 역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서구 이론 개념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보편적 단위가 아니라, 지역 학문장의 언어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적 층위를 구성하며 제도화되고 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7 필자는 2010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 언급한 번역어 사용의 차이를 한국(영문)학계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실제로 국문학·영문학·독문학·불문학 등 각 연구 전통과 학문적 수용 시차에 따라 deconstruction의 번역어는 ‘탈구성’, ‘탈구축’, ‘해체’, ‘해체구성’ 등으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번역사적 변동은 본 서평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필자 역량 밖의 작업이다.

이 책은 서구 이론을 단순히 한국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일본 인문학계라는 지적 매개층을 거쳐 번역된 텍스트이자 그 매개됨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문학이론을 둘러싼 지식의 생산·수용·정착 조건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 독자에게 『문학 ‘읽기’의 방법들』을 읽는 경험은 일본어 학문장을 경유하면서도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며, 이는 문학이론을 ‘비서구 지역’과 ‘국가’라는 토양 위에서 어떻게 위치지를 것인가를 새롭게 사유할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참고문헌

- 미하라 요시아키·와타나베 에리·우도 사토시·고하라 가이·닛타 게이코·하시모토 도모히로·이누마 가오리·이소베 사토미·모리타 가즈마·모로오카 유마(2024), 장문석·조은애·송민호 역, 『문학 ‘읽기’의 방법들: 문학이론 도구상자』, 이음.
- 조너선 킬러 저, 임옥희 역(1999), 『문학이론』, 동문선.
- 조너선 킬러 저, 조규형 역(2023), 『문학이론(개정판)』, 교유서가.
- 테리 이글턴 저, 김명환·정남영·장남수 역(1989),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 테리 이글턴 저, 김현수 역(2006), 『문학이론 입문(개정판)』, 인간사랑.
- 토마스 포스터 저, 손영미·박영원 역(2024), 『교수처럼 문학 읽기: 작품 속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문학 독서의 기술(개정증보판)』, 이루.
- 피터 베리 저, 한만수·박오복·배만호·김봉광 역(2001), 『현대문학이론 입문』, 시유시.
- Barry, Peter (2017), *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4th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arry, Peter (2013), *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3rd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arry, Peter (2002), *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2nd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arry, Peter (1995), *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uller, Jonathan (2011), *Literary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ller, Jonathan (1997), *Literary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 Leo, Jeffrey R. (2023), *Contemporary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An Overview*,

- London: Bloomsbury.
- Eagleton, Terry (2008),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25th Anniversary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agleton, Terry (1996),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2nd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agleton, Terry (1983),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oster, Thomas (2024), *How to Read Literature Like a Professor* (3rd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 Foster, Thomas (2014), *How to Read Literature Like a Professor* (2nd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 Foster, Thomas (2003), *How to Read Literature Like a Professor*, New York: Harper Perennial.

